

## 古文 中興의 ‘企劃’

—‘고문으로 시문을 쓴다’는 것의 문학사적 의미—

백 광 준\*

<目 次>

I. 緒論	1. 企劃의 背景
II. 古文 그리고 時文	2. 企劃의 志向, 그 誕生
III. 唐宋派가 내세운 標準	V. 未完의 企劃
1. 經書에 대한 理解	1. 企劃의 限界
2. 글쓰기의 變化	2. 企劃의 結果
IV. 意圖 그리고 企劃	VI. 그들의 企劃 以後

### I. 緒論

唐宋派는 正德, 嘉靖 인간에 활동한 문학 유파이다. 이들 이전의 명대 문단은 前後七子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으나, 모방과 표절의 경향으로 ‘공공의 적’이 되어 당시에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다. 다음의 인용문은 당시 당송파의 한 사람인 歸有光의 지향을 보여준다.

당시에 王世貞이 李夢陽, 李攀龍의 뒤를 이어 문단의 맹주가 되자 명성이 드날려 사방으로 퍼졌다. 귀유광은 한 노쇠한 舉子로 황량하고 쓸쓸한 공간에서 홀로 전해오는 경전을 보듬고, 이를 악물고 맞서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일찍이 판사람의 글에 서문을 써서, 속된 학문으로 그저 한 두 명의 망령되고 용렬한 인간이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배척하였

---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다(當是時, 王弼州踵二李之後, 主盟文壇, 聲華烜赫, 奔走四海, 熙甫一老學子, 獨抱遺經於荒江虛市之間, 樹牙頰相楮柱, 不少下, 嘗爲人文序, 詆排俗學, 以爲苟得一二妄庸人爲之巨子).<sup>1)</sup>

복고파의 잘못된 글쓰기 풍조에 맞서, 문풍을 바로잡기 위한 뜻을 세웠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복고주의의 풍조가 횡행하는 속에서, 그에 맞서 고문을 지키고자 했던 치절한 모습은 “황량하고 쓸쓸한 공간에서 홀로 전해오는 경전을 보듬고, 이를 악물고 맞서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구절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 묘사가 주는 강렬함만큼, 이것은 당시 당송파의 지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인용 소개된다. 하지만 고문의 발전 맥락에서만 접근하는 문학사는 명대가 팔고문이 득세하였던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워야 할 내용이 아직도 많다고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時文<sup>2)</sup>의 각도에서, 그들의 지향을 읽어보려는 시도이다.

## II. 古文 그리고 時文

전통 시기 중국에서 고문은 단순한 글쓰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인의 논의가 표출되는 방식이었고 성인과 연계된 지점에서 그 자체로 권위를 획득하였다. 이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선형적으로 주어질 고문 체계 속에서의 표출만이 온당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서는 일종의 언어 소통 방식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유교가 주류 담론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성인의 지위가 높아갈 수록, 그 言表 體系 또한 어길 수 없는 것으로 공고히 뿌리내렸다. 고문은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범주와 그 경계를 자연스

1) 錢謙益: <震川先生小傳>(歸有光 著, 《震川先生集》(臺北: 源流出版社, 1983)), 977쪽.

2) 이 글에 나오는 시문은 모두 時文을 가리키며, 이후로 나오는 시문에 대해서는 따로 한자 표기를 하지 않는다.

럽게 함축하고 있으며, 이는 '雅'라는 개념으로 표상되어, 올바르고 고상한 이미지를 획득하였으며, 그 반대 축에 놓인 '俗'의 배제를 강조해나갔다. 곧 성인의 글쓰기라는 불가침의 '권위'로 뒷받침되는 한, 일정 범주 이내에서만 반복과 재생산, 그리고 진동이 이루어질 뿐, 경계를 넘어서거나 경계 밖에 있는 언표 형식에 의한 균열을 허용치 않았다. '予不語<sup>3)</sup>했던 소설이나 희곡 등의 어투가 글쓰기에 섞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인과 된 소통 체계의 방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글쓰기였다. 이렇듯 고문은 성인이 '말을 세운(立言)', 그 방식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언표의 방식과 그 본래의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매개체로서의 성격과 함께, 나아가 그것이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주로 제약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성격을 드러낸다. 송대에 들어서, 이러한 고문은 과거시험과 결합하면서 제도적 속성이 더욱 강화된다. 물론 이전 시기 고문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강요를 요구하는 조건으로서의 그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들어서는 범으로 분명하게 구체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문은 고문과 비교할 때,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 형식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태생적으로 제도로서 등장하였다. 고문이 성인의 권위에 기대고 있는 것과 달리, 시문은 성인의 글쓰기가 아닌,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식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문체이며, 이는 성인을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통의 문인들에게 언제라도 천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를 잠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상황은 역시 성인과 관련된 기대는 방식을 통해 해결되었다. 곧 그 내용에서 성인의 취지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인의 말투를 실어 심층의 생각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근본이 없는 데서 비롯된 상대적인 취약함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문은 우선 시험을 위한 제도적인 편의성에서 강구되었으나, 동시에

3) 《論語》에 “子不語怪力亂神”이란 말이 있다.

전통적 소통 체계의 틀 안에서 탄생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명대 정가 연간에 들어, 당순지, 귀유광을 중심으로, 시문에 고문의 글쓰기를 접목하는 방법(以古文爲時文)이 시도되었다. 시험을 위해 만들어진 글쓰기에 고문의 글쓰기가 접목된 것이다. 눈여겨 볼 것은, 이러한 시도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은 고문이 아니라 시문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 글쓰기가 갖는 성격을 고려할 때, '아'와 '속'의 경계에 놓은 시문에 전통적 표준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시문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 Ⅲ. 唐宋派가 내세운 標準

#### 1. 經書에 대한 이해

우선 당송파가 시도한 새로운 글쓰기 방식에서, 그들이 시문에 표출코자 하였던 표준으로서 고문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귀유광의 <大學之道 一節>에 대해 《欽定四書文》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成化, 弘治 이전의 선배들은 대부분 경서의 말로 試題를 풀어내었는데, 정신의 통창함, 기상의 고원함이 이 작품만한 것이 없다. 배우는 이들이 고심하여 탐구하면 작자 마땅의 깊이를 알 수 있다. 詩經의 언어는 漢, 魏 사람이 사용하면, 바로 한, 위 사람의 기운이고, 한, 위의 악부고시를 六朝 사람이 사용하면 바로 육조 사람의 음절이다. 王鏊와 귀유광이 경서의 말을 이용하면 각기 그 글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과 닮아 있으니, 문장이 神氣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化治以前先輩多以經語詰題, 而精神之流通, 氣象之高遠未有若茲篇者. 學者苦心探索, 可知作者根柢之淺深. 三百篇語, 漢魏人用之即是漢魏人氣息. 漢魏樂府古詩, 六朝人用之即是六朝人音節. 觀守溪震川之用經語, 各肖其文之自己出者, 可悟文章有神).

귀유광이 경전의 내용에 맞춰 제출된 명제를 풀어낼 때, 정신이 유통하

고 기상이 고원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그가 경서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출할 수 있는 심후한 소양을 갖췄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尙書敘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생각에 현재 성인들의 책 중에 남아 있는 것들은, 연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학자들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다. 그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조와 문사에 차이에 달려있다. 후대의 사람들이 비록 최선을 다해 모방하려고 하지만 끝내 미세한 것까지 모사할 수는 없다. 학자들은 말투를 통해 성인에게 접근할 수 없고, 이단적인 생각에 현혹되지 않는다. …… 朱熹는 대체로 어떤 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았지만 올바르게 정확한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오선생은 실로 이룩한 성과가 있다. …… 수백 년 동안 왜곡되어 온 책은 한 시대의 대유학자의 손에서 밝게 빛나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지 않으니, 탄식할 만한 일이다(因念聖人之書存者, 年代久遠, 多爲諸儒所亂, 其可賴以別其眞僞, 惟其文辭格制之不同, 後之人雖悉力模擬, 終無以得其萬一之似, 學者由其辭可以達于聖人, 而不惑于異說. …… 朱子盖有所不安而未及是正吳公實有以成之 …… 以數百年雜亂之書, 表章于一代大儒之手, 而世亦莫能以尊信之, 可歎也已).<sup>4)</sup>

여기서 귀유광은 주희의 이해가 갖는 미흡함을 지적하고, 그와 다른 해석을 내린 吳澄(1249~1333)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당시 주자의 주가 가진 해석상의 권위가 상대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해석 경향이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벤저민 엘먼은 이를 ‘漢學으로 회귀할 조짐으로 읽어낸 바 있으며, 또한 “위의 사료가 고문의 문장을 짓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연습이 필요하며, 이 연습을 거쳐야만 명대 말기에 존재했던 고대 전적을 소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sup>5)</sup> 있다고 논하였다. 《明史·文苑傳》에도 “귀유광의 시문은 경술에 심오하여, 대가로 우뚝 섰다(有光制學業,

4) 歸有光: <尙書敘錄>(《震川集》).

5) 벤저민 엘먼 지음,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서울 예문서원 2004), 136 쪽

湛深經術，卓然成大家)”<sup>6)</sup>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는 귀유광이 경전에 대해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을 갖추었으며, 이것이 고문과 시문의 수련으로 이어진 것임을 알려준다.

## 2. 글쓰기의 變化

### 2.1. 曲盡한 글쓰기

그들의 글쓰기는 또한 곡진하고 질박하였다. 이는 특히 唐順之의 글쓰기가 가진 특징이다. 아래는 당순지의 <三仕爲令尹 六句> 중 [下股] 부분이다.

及其將去，而新令尹以代也，吾知忌心生於新故之變，則必幸其敗事，以形吾之善；愠心起於去位之日，則必不謀其政，而任其人之爲。況夫功成者退，則舊政雖善，未必其我德也；責有所歸，則新政雖不善，亦未必其我咎也。子文則知有國而已矣，知有君而已矣。懼其未識乎治體也，而孰所當因，孰所當革，盡其說而道之焉；懼其未識乎民宜也，而孰爲便民，孰爲不便於民，舉其國而聽之焉。大其心，而不計其形迹之嫌；忘其私，而求善夫身後之治。使其政之行於我者，猶其得行於彼也；而政之行於彼者，猶其得行於我也。吾於是而知其心之公矣。<sup>7)</sup>

자신이 곧 파면되어, 새로운 영윤이 교대할 때에 이르면, 시기심이 이 상황의 변화로부터 생겨, 반드시 그가 일을 망치기를 바램으로써 자신의 뛰어난을 드러내고, 분노가 그 날의 파면으로부터 생겨, 반드시 그 정사를 돕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를 내버려둘 것을 나는 안다. 하물며 공을 이룬 사람이 물러나면, 옛 정책이 비록 좋다한들 반드시 내 덕을 거론하지도 않고, 책임이 각기 귀속한 바가 있으면, 새 정책이 비록 좋지 않다 한들 역시 반드시 내 잘못을 거론하지는 않을 것임에랴. 子文은 나라가 있음을 알았고, 군주가 있음을 알았을 뿐이다. 정치의 틀을 알지 못할까 걱정하여, 어느 것을 마땅히 따르고 어느 것을 마땅히 고쳐야 하는 지 그 말을 전부 알려주었다. 백성들의 요구를 알지 못할까 걱정하여, 어느 것이 백성에게

6) 《明史·文苑傳》.

7) 唐順之: <三仕爲令尹 六句>,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유리하고 어느 것이 불편한 지 그 나라의 모든 일을 들어 들려주었다. 자신의 마음을 관대하게 하여, 그 행위의 문제점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잊어 이후의 다스림이 나아지기를 바랐다. 정책 중 자신 임기에 행했던 것이 여전히 후임자에게서 행해지고, 정책 중 후임자 임기에 행했던 것이 또한 자신에게서 행해질 수 있게 하였다. 나는 이로써 그 마음이 공정함을 알았다.

직접 읽고 느낄 수 있듯이, 고문 가운데 論辯文의 느낌을 줄 정도로, 논의가 짜임새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팔고문의 주요 특징으로, 반복되며 나타나 글의 전개를 방해하는 '마디(股)'의 반복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논리 전개를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소화해내고 있으며, 또한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글로 담아내어 설득력을 배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欽定四書文》에 실린 이 글의 평어에는 “신하로 논의를 세워, 자신과 나라를 대조하여 살펴 바른 것과 그른 것이 함께 묘사되었으니, 자문의 전체 면모가 이미 드러났다(就人臣立論, 身國對勘, 反正相形, 子文全身已現).”고 하여 대상 인물의 모습이 곡진하게 현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나아가 귀유광과 비교를 통해, “사리를 밝히고 상황을 묘사하면서, 곡절을 충분히 전달하여, 사람들이 바라보고 감동하였다(歸唐皆以古文爲時文, 唐則指事類情, 曲折盡意, 使人望而心開).”<sup>8)</sup>는 점을 당순지의 글쓰기 특징으로 개괄하였다. 그의 글의 곡진한 특징을 주목한 것이다.<sup>9)</sup>

## 2.2. 氣勢 있는 글쓰기

당순지의 <三仕爲令尹 六句> 평어에는, “귀유광, 당순지는 고문으로 시문을 썼다. …… 귀유광의 경우, 정밀한 이치를 체득하고, 웅장한 기세로 포괄하여,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였다(歸唐皆以古文爲時文. …… 歸則精理內蘊, 大氣包舉, 使人入其中而茫然).”<sup>10)</sup>고 지적하고 있다. 귀유광의 글쓰기

8) <三仕爲令尹 六句>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9) <孰不爲事 一節>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참고

10) <三仕爲令尹 六句>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를 웅대한 기세와 심오한 이치 두 가지 특징으로 파악한 것이다. 심오한 이치는 앞에서 본 것처럼, 경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한 것이며, 기세는 그 글쓰기의 스타일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세는 고문 글쓰기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기세가 시문에 넘치는 것은 곧 시문에 고문이 스며든 것을 의미한다. 귀유광의 <夏禮吾能言之 四句>의 평어를 보면, “고아하고 웅혼한 기운이 행간을 휘감고 있다. 귀유광의 다른 글도 모두 그러하지만, 이 글은 특히 구양수의 逸宕之氣를 구현하였다(古厚清渾之氣盤旋屈曲於行格間. 歸震川他文皆然, 而此篇尤得歐陽氏之宕逸).”고 하였다.<sup>11)</sup> 바로 구양수의 고문 필법을 터득하여, 세차고 시원스러운 기세를 펼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귀유광이 고문의 기세로 시문이 가진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귀유광의 <吾十有五而志于學 一章>의 일부를 보자

聖人所以至於道者, 亦惟漸以至之也.[과제]

성인이 도에 이르는 방법 또한 오직 점진적으로 이르는 것이다.

夫道無終窮, 雖聖人, 亦有待於學也, 學之則不容無漸矣, 此其理之固然, 而豈聖人過爲卑論以就天下也哉.[승제]

도의 끝은 없으니, 성인이라도 학문에 의존해야 한다. 학문은 점진적이지 않은 것을 허용치 않는다. 이러한 이치는 당연하니, 어찌 성인이 천속한 논의를 펼쳐 천하에 다가섰던가!

……

夫以六十七十之所自得者如此, 夫豈以年彌高, 而德彌劭哉, 亦以道久而後熟, 故日有所不同耳. 是知志者志此理也, 立者立此理也, 不惑而知之者亦此理也, 至於耳順從心而理與心一焉, 君子之學求至於是而已也[수결]

60, 70에 자득한 것이 이와 같다. 어찌 나이가 높아질수록 덕이 아름답겠는가! 또한 도가 오래된 후에 심오해지기 때문에, 날마다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이로써 뜻있는 이가 뜻하는 것이 이 도리이고, 도모하는 사람이 도모하는 것도 이 도리이며, 미혹되지 않고 그것을 아는 것도 또한 이 도리임을 알겠구나. 이순, 중심에 이르러 이치와 마음이 하나가 되니, 군자의

11) <夏禮吾能言之 四句>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학문은 여기에 이르러 그치는 것이다.<sup>12)</sup>

이 글은 《論語·爲政篇》의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구절에 대한 서술이다. 귀유광은 이 글에서 점진적으로 학문해야 한다는 사실로 논의를 시작한 다음, 공자의 논의 순서에 맞춰 ‘一氣到底’하고 있으며, 15, 30과 40, 50, 그리고 60, 70을 마디(股) 삼아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였다. 의도적인 안배의 자취를 찾기 어려우며, 자신이 내세운 말을 화두로 삼고, 이후 시제의 시간 순서에 따라 논의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팔고문 형식에 들어맞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글의 평어도 비슷한 입장을 보여준다.

고문으로 시문을 짓는 것은 당순지로부터 시작하여, 귀유광이 또한 호방함으로 넓혔다. 이런 글은 실로 韓愈, 구양수의 기세로 정주의 이치에 이른 것으로, 당시의 의도에 들어맞으며, 중횡으로 변화함이 자연스러우니 훗날의 작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以古文爲時文自唐荊川始, 而歸震川又恢之以闕肆. 如此等文實能以韓歐之氣達程朱之理, 而昭合於當年之語意, 縱橫排盪, 任其自然, 後有作者不可及也).<sup>13)</sup>

이는 그들의 글쓰기 지향을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 우선 고문으로 시문을 쓰는 시도는 당순지에서 시작하여 귀유광에 의해 더욱 확대 발전되었으며, 특히 귀유광은 한유, 구양수의 기세를 가지고 정주의 이치를 드러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곧 그의 글은 성인의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고문의 기세로 펼쳐낸 것이라 할 수 있다. “先儒의 진주에 침잠하여, 깊고 성실하게 축적하여 쉽게 표출하였으니, 호탕한 기운이 넘치지 않으면 또한 이렇게 뜻대로 펼쳐낼 수 없다(沉潛儒先訓義, 積之深醇而出之顯易, 然非浩氣充溢, 則亦不能若是之揮斥如志也).”<sup>14)</sup>고 지적한 내용도 비슷한 맥락

12) 歸有光: <吾十有五而志于學 一章>의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13) <吾十有五而志于學 一章>의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14) <性相近也 一節>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요컨대 《흠정사서문》에서는 그들의 글쓰기의 차이를 “대체로 당순지는 역사적 사실에 깊이 통찰하였고, 귀유광은 그와 더불어 경서에도 능통한 데서 비롯한다(蓋由一深透於史事, 一兼達於經義也).”<sup>16)</sup>라고 요약하였다. 곧 당순지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귀유광은 경서에 대해 통달함으로써, 서로 간의 글쓰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둘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sup>17)</sup> 특히 귀유광이 경서에 깊은 조예가 있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기 그들이 시문에 접목코자 했던 고문의 성격을 개괄한다면, 우선 깊은 경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문이 갖고 있는 기세와 질박한 서술을 글에 반영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 IV. 意圖 그리고 企劃

##### 1. 企劃의 背景

그들이 새롭게 시도한 글쓰기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이 갖는 의미를 헤아려보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 글쓰기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성화, 홍치 이전까지 시문은 전통 문인들에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

15) <武王纘太王 二節>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참고

16) <三仕爲令尹 六句>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17) 이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론은 별을 끌고 솟구치며, 그 기세는 강하를 터서 흘러내려간다. 그 근본은 경서를 살피고 역사를 헤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귀유광의 글이 있자, 팔고문이 장구한 시간동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其議論則引星辰而上也, 其氣勢則決江河而下也, 其本根則稽經而誡史也, 故自有歸震川之文, 制義一術可以百世不涇.”(<天子一位一節>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라고 하며, 귀유광의 글쓰기를 의론과 기세로 요약하고, 나아가 역사를 참작하고 경서를 궁구하였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다.

곧 시문은 그 이름으로 보듯, 당시 사대부들에게 고문과의 차이는 인지되었지만, 기존 문인들이 선형적으로 갖고 있는 이속의 기준으로 볼 때 '야'의 범주에 포용될 수 있는 글쓰기였다. 그래서 그들은 고문과 시문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성화, 홍치 연간에 들어서 시문의 형식은 까다로워지고 정형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것이 가진 특징, 곧 여덟 마디로 나뉘어 대를 이루며 전개되는 방식으로 인해, '八股文'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탄생하였다. 이는 글쓰기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재 등용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주로 하는 이상, 행정적 편의 차원에서 시문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행정적인 편의 기능이 제고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한 현실과 관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들어 대다수 문인들은 전적으로 시문에만 매달리며, 고문을 소홀히 하였다.

성화, 홍치 연간의 전배들의 대비는 대부분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았다. 곧 풍조가 처음 열려, 글쓰기 법이 정교하지 않았으니, 귀유광이라도 때로 피하지 못하였다(化治先輩對比, 多辭異而意同, 乃風氣初開, 文律未細, 雖歸震川, 猶或不免).<sup>18)</sup>

성화, 홍치 연간의 글이 대비를 위한 대비였다는 점을 말하면서 귀유광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화, 홍치 연간에 팔고문이 격식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팔고의 격식이 마련되었지만, 당시 문사들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던 것이며, 귀유광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시기 정형화된 시문은 애초 고문에 익숙한 문사들에게 낯선 글쓰기였으며,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초래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시문의 기원을 잊히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고'에 포섭될 수 없는 '시'적 속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들이 급기야 '고'와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전통적 소통 체

18) <詩三百 一節> 평어, 《欽定四書文·正德四書文》.

계를 거부하는 언표체계로서 다가왔다. 이렇듯 시문의 형식화로 인한 변질의 상황이 성인의 언표체계인 고문과의 상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라, 당시 옛 학문에 뜻을 둔 문사들에게 소통 방식의 혼란을 막아낼 책임이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이다.

## 2. 企劃의 志向, 그 誕生

고문은 사유가 표출되는, 선형적으로 정의된 정당한 소통 방식으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기존 체계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 시문의 일탈은 옛 것에 뜻을 둔 선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글쓰기 변화가 아니라, 전통적 소통 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맞은 이들이 바로 당송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시문을 고문으로 쓰고자 했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은 우리들의 시각에 의해서, 고문으로 시문을 지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문제점은 기원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왕안석이 시문을 고안하였을 때는 별개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왕안석이 창안한 시문은 애초 논변문과 유사하였다. 다만 경서의 말로 출제를 하여, 천하의 문체를 바른 곳에서 비롯하게 하였으며, 또한 법이 비교적 엄하였을 따름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구가 필히 正對(정대)여야 할 필요는 없었고, 증명과 비유를 필히 폐할 필요도 없었으며, 아래의 글을 범하는 것도 반드시 꺼리지도 않았다. 후인들이 발전시켜, 글은 더욱 정교해지고 體式(체식)은 더욱 저하되었으며, 법은 더욱 엄밀해졌고, 이치는 더욱 성기어졌다(蓋荊公創立制義, 原與論體相仿, 不過以經言命題, 令天下之文體出於正, 且爲法較嚴耳. 然當時對仗不必正, 證喻不必廢, 浸下文不必忌. 自後人踵事增華, 文愈工而體愈降, 法愈密而理愈疎).<sup>19)</sup>

이를 통해 애초 시문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밀한 형식이 아

19) 《書香堂筆記》(梁章鉅 著, 《制藝叢話》(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46쪽.

나라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고문의 논변류에 가까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이 고문으로 시문을 쓴 시도는 고문과 시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을 결합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애초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던 시문의 글쓰기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곧 그들의 노력은 시문이 자기 색깔을 점점 가지며, ‘雅’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 기원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었다. 예컨대 역시 당송과의 일원인 茅坤은 중대한 소명의식으로 무장하고, 고문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팔고문은 지금의 글(今文)이지만, 만약 그 정수를 갖출 수 있다면, 고문이라고 일러도 된다(妄謂舉子業今文也, 然苟得其至, 即謂之古文亦可也).”<sup>20)</sup>고 외쳤다. 이것은 바로 시문에게 ‘반성’할 기회를 줄 테니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고문을 쓰자는 구호로서의 욕망과 당시 주류 글쓰기였던 시문과의 관련성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끌어내려는 욕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sup>21)</sup> 錢謙益은 귀유광의 글을 “뿌리를 육경에 두고 있으며, 太史公의 《史記》를 좋아하여, 능히 풍격과 조리를 터득하였다(熙甫爲文原本六經, 而好太史公書, 能得其風神脉理).”<sup>22)</sup>고 보았다. 귀유광의 고문 성격은 시문에 반영되어 나타난 그의 글쓰기 모습과 그대로 겹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의도는 고문 글쓰기를 시문의 틀에 접목시키는 것이었으며, 그것도 부분적인 수용을 통한 개선이 아니라, 고문과의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문과 고문이 애초 한 가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자꾸 상기시키고 떠올리는 시도는 그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 茅坤: <復王進士書>(《茅鹿門先生文集》(《續修四庫全書·卷1344》(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544쪽.

21) 당시의 팔고문과 고문의 관계, 그에 대한 시선은 좋고, <《당송팔대가문초》>의 기원에 관하여(《中國文學·第43輯》(서울: 韓國中國語文學會, 2005))를 참고할 것.

22) 錢謙益: <震川先生小傳>(歸有光 著, 《震川先生集》(臺北: 源流出版社, 1983)), 977쪽.

근래에 팔고문이 新奇함에 힘써서, 매번 방이 붙으면 한 차례 눈이 부시지만, 팔고문이란 예전에 왕안석이 詩賦로 선비를 등용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특별히 經義를 마련함으로써 천하의 선비를 구하였으니, 이것이 곧 한대 사람이 경전을 연구한 취지임을 알지 못한다. (近年來舉業已多務新奇, 每一放榜一番炫眼, 抑不知舉子業故起於王荊公所厭詩賦取士而特設經義以求天下之士.).<sup>23)</sup>

모곤의 이 말은 “팔고문이 역사적으로 경술에 대한 이해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sup>24)</sup>하여 경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시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원을 강조하는 사유의 의도를 내보이는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고문으로 시문을 쓰자는 전략은 시문 글쓰기의 수정 차원에서 새로운 글쓰기를 모색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표 체계의 기원으로 돌아가 애초의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자는 것,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통 체계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사회에 던지는 그들의 물음이며, 그들의 지향이 시대 기획으로 탄생되는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문단을 주도하였던 전후칠자 또한 팔고문 외에 다른 공부를 하지 않던 당시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그들의 이론이 비롯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25)</sup> 따라서 서로 간의 실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향에 있어서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당송과의 지향이 시대 기획으로서 의미를 담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茅坤: <與胡學人朴菴書>(《茅鹿門先生文集》)(《續修四庫全書·卷1344》(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526-527쪽.

24) 즐고, <《唐宋八大家文鈔》의 起源에 관하여>(《中國文學·第43輯》)(서울 韓國中國語文學會, 2005), 103쪽.

25) 鄧雲鄉, 《清代八股文》(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4.), 148쪽.

## V. 未完의 企劃

## 1. 企劃의 限界

당송과가 활동하던 당시는 진사 출신이 대접받는 사회였다. “명초에 천거의 법을 폐지하고, 과거시험 가운데 특히 진사를 중용(明初薦辟之法既廢, 而科擧之中尤重進士)”<sup>26)</sup>하였으며, “선비가 출세함에 과거가 아니면 귀히 여기지 않았고, 과거는 장원이 아니면 중히 여기지 않았다(士之起家非科目不貴, 科目非元不重)<sup>27)</sup>.” 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과거 시험장으로 이끌었고, 대부분의 학사들은 고문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黃宗羲는 “삼백 년 동안 선비의 정신이 온통 시문에 쏟아졌고, 그 여가를 내어 고문을 지었으니, 전대의 전성기에 미칠 수 없음은 이상하지 않다(三百年人士之精神, 專注于場屋之業, 割其餘爲古文, 其不能盡如前代之盛者無足怪也).”<sup>28)</sup>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대다수 문사들이 출세를 위해 팔고문에만 매달린 상황 하에서, 고문에 종사한 문사들은 상대적으로 뜻있는 소수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들에게 성인의 학을 지향하는 학문으로써 ‘고’의 성격만큼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가져다주었다. 더불어 당시 사회 상황 또한 유리하게 전개된 측면이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껍이나 다행스럽게도, “賀啓를 증송하는 예는 옛날의 백배나 되어, 그런 상황에서 代作을 청하지 않을 수 없다(送贈賀啓之禮, 乃百倍於古, 其勢不得不取諸代)”는 徐渭의 말에서 확인되듯, 고문의 수요가 여전히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문을 쓸 수 있었던 인물이 많지 않은 탓에, 그들의 몸값과 자부심은 대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會稽의 서위가 胡宗憲의 빈객으로 있을 때, 자신의 고문 덕분에 공께서 길이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

26) 顧炎武: <進士得人>(《日知錄》).

27) 梁章鉅 著, 《制藝叢話》(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240-241 쪽.

28) 황종희는 고문이 쇠퇴한 이유를 당시 문사들이 팔고문에 몰두한 데서 찾았다 (黃宗羲: <南雷文約·明文學案上>)

부하는 일화 속에서,<sup>29)</sup> 우리는 고문의 글쓰기가 가진 비중이 어느 때보다 컸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그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함께 감안하면, 또 다른 가능성을 통해 자존심을 유지한 당시 문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문 글쓰기가 가능했던 고급 문인 계층은 일반 문인들 대부분이 팔고문 글쓰기에 매진했던 상황 속에서 옛 학문을 구비하였다는 데서 오는 남다른 자부심을 견지할 수 있었다. 당시 문사들의 지향을 서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근세에 과거의 범령으로 선비를 속박하자, 선비들은 떼거리로 달려들고, 사람들마다 그것을 익히지만, 팔아먹는 데 급급하거나 그 쓰임새만 따져서, 고인의 글을 보면 자신의 일을 방해한다고 여기고 결국은 팽개치고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중 그것을 좋아하는 이가 있어서, 간혹 옛 서적을 그러모아 음향을 다듬지만, 꼭 막힌 한 늙은 학사일 따름이어서, 당시의 현안에 대해서는 행하니 마음에 도모하는 바가 없다. 대체로 선비들은 당장의 쓰임에만 급급해서 옛날의 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중 일부는 옛날의 공허한 글에 빠져 오늘날의 실용에 보탬이 되지 못하여, 속학에 얽매이지 않으면 고루한 선비로 전락하니,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서 그 당시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고 죽으면 후세에 묻혀버리고 마니, 그럼에도 그 글이 길이 전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近世以科條束士, 士群趨而人習之以急于售而試其用, 其視古人之文則見以爲妨己之業也, 遂相與棄去不講. 間有嗜之者, 或搜拾舊墳, 摩切音響, 塊然一老生學士耳, 而于當世之務, 缺然無所營于心焉. 夫士急于用而不知有古之文, 其或溺于古之空文矣而無補于今之實用焉, 不拘于俗學則陷于迂儒, 此其人, 生而無所效于時, 死即泯沒于後世矣, 尚望其文之能傳且久矣)<sup>30)</sup>

여기에서 그는 문사를 세 층위로 나누어, 우선 관료가 되기 위해 팔고문에만 몰두하는 ‘俗學之士’와 고문에 뜻을 두지만 세상사에 어두운 ‘迂儒’, 그리고 여기에 명사되지는 않았지만 고문 소양을 가지고 더불어 현실에

29) 唐富齡 主編, 《歷代小品妙語》(武漢: 崇文書局, 2004), 100쪽 참고.

30) 徐渭, 〈黃潭先生文集序〉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선비로 제시하였다. 고문의 장악 여부에 서 나아가, 현실과의 관련성을 견비해야 올바른 문사라고 본 것이다. 당송파는 그가 정의한 세 번째 영역에 속하는 집단으로, 이들은 서위처럼 고문을 도외시하는 풍조 속에서 고문 능력을 구비한 소수의 뜻있는 그룹이었다. 이런 당시 상황을 감안한다면, 고문으로 시문을 쓰는 기획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그들이 시문 수련이 충분한 상태에서 게다가 고문 소양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sup>31)</sup> 당순지, 귀유광이 모두 고문, 시문의 대가였던 점은 그들이 고문 대가로서 시문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시문의 시대에 살면서도 고문에 대한 능력을 견비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팔대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양수, 증공은 뒤따르고, 왕안석은 나란히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熙甫爲文, 原本六經, 而好太史公書, 能得其風神咏理, 其於八大家, 自謂可肩隨歐曾, 臨川則不難抗行).<sup>32)</sup>

구양수, 증공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왕안석의 경우에는 필적할 만하다는 귀유광의 말에서 그의 고문에 대한 자부심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고문에 대한 넘치는 자부심은 바로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증폭되고 있다.

## 2. 企劃의 結果

당송파의 대표자인 당순지는 일찍이 서위의 글을 보고서 “이 글은 거의 우리들 것 같군요(此文殆吾輩!)”<sup>33)</sup>라고 한 바 있다. 두 사람이 이후 깊은 교류를 했던 것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의 고문에 대한 조예와 지향점이 비

31) “明代學子業最擅名者, 前則王鏊唐順之, 後則震川思泉.”(《明史》)

32) 錢謙益: <震川先生小傳>(歸有光 著, 《震川先生集》(臺北: 源流出版社, 1983)), 977쪽.

33) 陶望齡, <徐文長傳>

솟했음을 보여준다. 고문으로 시문을 쓰며 팔고문의 형식적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하였던 당송과의 한 사람인 당순지와 서위가 의기투합하였고, 모곤 또한 《唐宋八大家文鈔》를 기획하는 등 고문의 부활을 노래하였던 상황은 고문이 팔고문에 의해 가려져 있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고문의 소양을 여전히 갖추고 있던 고급의 문인들이 나서서 내세운 반성의 기획은 당시 사회에 일정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당시 정형화한 시문을 고문의 글쓰기와 접목함으로써, 글쓰기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기도 하였다. 吳承學은 그들 기획의 주요 성과로 성화, 홍치 연간의 격식을 희석시킨 점과 팔고문 문체를 다양화한 점,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sup>34)</sup> 나아가 명대에 당송과가 왜 이와 같은 기획을 펼쳤을까를 고민하면서, 응시의 측면에서 고문 학습이 시문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논하였다. 과거 시험이 모두 세 차례 시험(三場)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을 제외하면 두, 세 번째 시험은 고문으로 보는 시험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상황을 소홀하여 빚어진 오해로, 당시 “수험생들이 3차례의 시험에서 작성한 10여 편의 글 가운데 오직 첫 시험의 사서의 3편만 심사”되어, 당시 사인들은 시문 공부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sup>35)</sup>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그들의 기획은 애초 고문 글쓰기가 많이 외면당하는 당시 상황에서 문제점을 부각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고문을 등한시했던 대다수 사인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순지의 <有故而去 五句> 평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옛 것을 깊이 이해하였으니, 군신의 의리가 三經 三禮 三傳에 대한 해박함에서 비롯하였고, 또한 고문의 기세, 격식으로 표출하였다. 그러므로 동시대의 작자들이 모두 굴복하였다. 대체로 후자는 식견이 삼원하지 않고, 후자는 재능이 뜻에 미치지 못하여 비록 고심하여 구상하지만 끝내

34) 吳承學, 李光摩, <八股四題>(《文學評論》, 2004年第2期, 30쪽)

35) 金靜 著, 김효민 역, 《중국과거문화사》(서울: 동아시아, 2003), 270쪽.

시문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深明古者 君臣之義由熟於三經三禮 三傳, 而又能以古文之氣格出之, 故同時作者皆爲所屈. 蓋或識不及遠, 或才不逮意, 雖苦心營度, 終不能出時文蹊徑也).<sup>36)</sup>

동시대의 작자들이 탄복하였으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따라가기 어려웠다는 내용으로부터, 그들이 전통적인 언표 체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고상한 뜻을 표방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학습하기에는 그리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는 예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기획은 애초 의도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곧 '古'를 내세워 기원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한 기획은 엉뚱하게도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시'와 '고'를 대립시키는 결과를 빚어내었다. 율경, 만력 연간 당송파의 기획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시문은 오히려 더 힘차게 전통적 소통 체계 안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던 점은 당시 이런 사정 속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sup>37)</sup>

## VI. 그들의 企劃 以後

당순지, 귀유광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미 시문의 세상이었고, 그 이후 과거 시험이 폐지될 때까지 이는 변하지 않았다. 시문의 영향은 적지 않아서, 과거 급제 후 시문을 짓지 않더라도 어려서부터 뇌리에 깔려있는 생각은 평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다.<sup>38)</sup> 고문의 글쓰기 방식으로 시문을 쓰고자 했던 그들도 오히려 시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황종희는 귀유광의 글에 대해 “시문의 경계가 간혹 섞여있다(時文境界, 間或闖入)”고 하였고, 章太炎 또한 귀유광에 대한 중국번의 평가를 인용하여 그

36) <有故而去 五句> 평어 《欽定四書文·正嘉四書文》

37) 줄고, <변화의 시대, 변화의 글쓰기>(《中國文學·第44輯》계재 예정 서울 韓國中國語文學會, 2005).

38) 何滿子: <制藝叢話序>(梁章鉅 著, 《制藝叢話》(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3쪽.

의 글에 시문의 흔적이 짙음을 지적하였다.<sup>39)</sup> 또한 청대의 최대의 고문 유파인 桐城派의 비조인 方苞 또한 시문 대가로, 고문으로 시문을 짓는 방식을 추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시문으로 고문을 지었다는 비방에 직면하였다.<sup>40)</sup> 이러한 예들은 더 이상 순수한 형태의 고문과 시문이 존재할 수는 없으며, 두 글쓰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방포는 《흙정사서문》의 <凡例>를 통해 팔고문 선집 편찬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가 연간에 이르러, 작자들이 비로소 고문으로 시문을 지어, 경과 사를 합쳐서, 명제의 뜻이 요모조모 꼭진히 드러나게 하였으니, 명대 글의 전성기이다(至正嘉, 作者始能以古文爲時文, 融液經史, 使題之義 蘊 隱 顯曲暢, 爲明文之極盛).”<sup>41)</sup>라고 평가하였다. 이로부터 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sup>42)</sup> 더불어 당송과의 기획이 방포에게 수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방포를 이어 姚鼐에 이르러 동성파는 유파로서 태동을 한다. 동성파가 청대에 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문과 시문이 서로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요내가 이중의 상위 학술개념으로서 ‘詞章’을 표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연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43)</sup> 실제 문학 이론과 학술 활동에서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는데,<sup>44)</sup> 이로 인해 때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바로 그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이 시기에 들어와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들의 뛰어난 점을 말하는 것이다. 당송과가 내세웠던 기획의 ‘버젓함’ 속에 감추어진 허술함은 동성파

39) 吳承學: <簡論八股文對文學創作與文人心態的影響>, 80 쪽.

40) 錢大昕: 跋方望溪文(《潛研堂文集》).

41) <凡例>(《方望溪全集》(臺北: 世界書局, 1965)), 287 쪽

42) 方苞는 <禮閣示貢士>에서도 “至於唐歸然後, 以古文爲時文, 理精法備, 而氣益昌.”라고 지적하고 있다.

43) 拙稿, <桐城派의 成立과 志向, 그리고 八股文>(《中國文學·第42輯》, 2004), 116-118.

44) 拙稿, <桐城派의 講學 傳統>(《中國語文學·第45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05), 414-426.

에 이르러 효과적으로 반성되고, 실질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시문의 거센 흐름 속에서 반성적인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기획은 의미를 갖는다. 徐存菴은 “귀유광은 나이 60에 진사가 되어, 정덕, 가정 연간의 쇠퇴함을 떨쳐, 융경, 만력 연간의 성대함을 얻었으니, ‘글의 중흥’이라고 불려도 지나치지 않다(熙甫年六十成進士, 振正嘉之衰, 開隆萬之盛, 謂之文字中興, 非過也)”<sup>45)</sup>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그들의 기획이 가지는 성격을 잘 요약한 말이라 하겠다.

### 〈參考文獻〉

- 歸有光 著, 周本淳 校點, 《震川先生集》, 臺北: 源流出版社, 1983.
- 茅坤 撰, 《茅鹿門先生文集》(《續修四庫全書·卷1344》),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方苞 撰, 楊家駱 編, 《方望溪全集》, 臺北: 世界書局, 1965.
- 梁章鉅 著, 陳居淵 校點, 《制藝叢話》,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 鄧雲鄉, 《清代八股文》,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4.
- 벤저민 엘먼 지음, 양휘웅 옮김,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서울: 예문서원, 2004.
- 金靜 著, 김효민 역, 《중국과거문화사》, 서울: 동아아시아, 2003.
- 권응상 지, 《徐渭의 삶과 詩文論》, 대구: 중문출판사, 1999.
- 吳承學: 〈簡論八股文對文學創作與文人心態的影響〉
- 姜德成: 〈明科舉弊端與嘉隆萬士子思想之變遷〉, 《四川教育學院學報》, 第三, 四期, 第十五卷, 1999.
- 吳承學, 李光摩, 〈八股四題〉, 《文學評論》, 2004年第2期.
- 拙稿, 〈《唐宋八大家文鈔》의 起源에 관하여〉, 《中國文學·第43輯》, 서
- 45) 梁章鉅 著, 《制藝叢話》(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79 쪽

을: 韓國中國語文學會, 2005.

拙稿, <桐城派의 講學 傳統>, 《中國語文學·第45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05.

### <中文提要>

明代正德年間以唐順之, 歸有光爲中心, 展開了古文復興的籌劃。其籌劃主要是以古文爲時文的, 即把古文書寫反映在時文書寫里。考察他們的時文, 我們可以將他們重視的分爲兩個, 一是對經書的理解, 即根據得到的理解展開自己的思想, 二是有關書寫的, 首先運用古文書寫的气勢, 還有用古文語气叙述得比較通暢。值得一提的是, 這樣的因素基本上是跟他們本來對古文持有的看法相同的, 就呈現出他們站在自己的古文立場上對待時文。時文在成弘以前不難被文士接受, 因爲當時書寫可以說還在傳統標準範圍之內, 而到了成弘年間時文的形式過於嚴密, 使得當時文士意識到時文和古文的差別。要注意的是, 時文由王安石創制, 開始時接近于古文的論辯文体, 也就是說兩者之間原本沒有很大差距。在正嘉年間, 唐宋派提倡古文, 就強調這一點, 以使文士想起其起源。由此可見, 他們運用古文書寫試圖把時文回到起源。不過, 他們的籌劃未免有限, 是因爲當時文士几乎都埋頭時文, 不留意于古文, 并且沒有具備古文書寫能力。在這樣的情況下, 其籌劃的影響未免局限爲高級文士, 盡管其籌劃給文士提醒當時的書寫失爲脫離書寫標準, 加以反思, 就像徐存菴所說的“文字中興”。

他們活在時文的時代, 而沒有考慮好這一點, 但從此引起的反思後來影響桐城派的成立, 該派雖然贊同唐宋派的基本立場, 而却并重古文和八股文, 可以說這是該派的成功所在。

주제어: 소통 체계, 以古文爲時文, 唐宋派, 文字中興, 桐城派